

신안 영산도는 '신령들이 사는 섬' 진도 관매도엔 돌묘와 콩돌이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향토문화 자원조사 지명 기원 찾아

#신안군 흑산도에 딸린 영산도 지명 유래는 다양하다. 신안군지(郡誌)에 따르면 '봄을 맞는 영춘화(영산화)가 많이 피는 섬'이라해 영산도란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섬에는 영산화가 없다. 마을 주민들은 '신령들이 사는 섬', '산세가 신령스런 기운이 깃든 곳'이라 해 영산도라 부른다고 한다.

#진도군 관매도 관교마을 바닷가에는 인위적으로 정교하게 조각한 듯한 길이 1m의 돌묘(왕의 묘와 같이 생긴 돌)와 직경 4~5m의 콩돌이 있다. 콩돌은 사람의 왼손을 파서 받쳐둔 모양으로 종하단에 움푹 패인 홈이 손바닥 손금까지도 새겨져 있는 듯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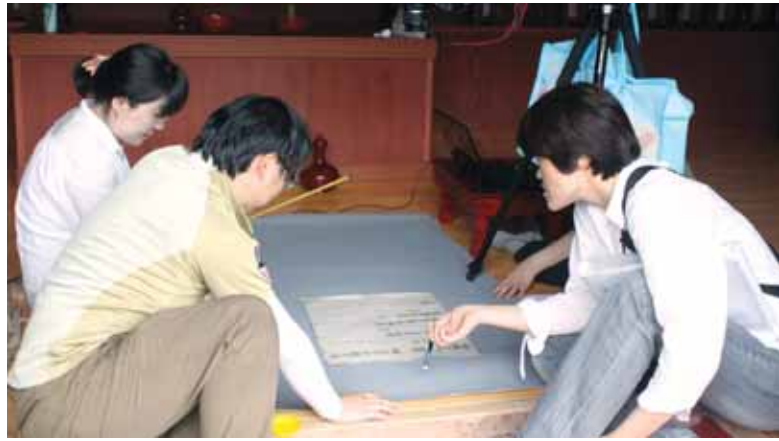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해상 국립공원내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향토문화 자원에 대한 확대 조사에 나섰다.

서부사무소는 지난 2011년 구축된 DB(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지정 문화재 13건, 비지정 문화재 23건 등 총 36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외에 올해 역사·문화자원 범위를 향토문화 자원으로 확대했다.

서부사무소는 지역전문가 및 주민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영산도·관매도에 산재한 지명 유래와 섬에 정착된 모양으로 종하단에 움푹 패인 홈이 손바닥 손금까지도 새겨져 있는 듯 뚜렷하다.

특히 관매도에서 1976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낸 사주단자(四柱單子) 등 신규자원을 발굴하고, 영산도 해녀 3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라져



섬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하고 있는 서부사무소 직원과 지역 전문가.

가는 섬마을 고유의 생활상 및 인문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홍보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

또한 이미 구축된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원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스마트

폰 앱 등 IT기기를 활용한 조사기법으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

박용규 서부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유산과 전통지식 등 향토자원을 DB화함으로써 공원자원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도쿄에 울려 퍼진 목포시향 선율

목포 시립 교향악단(상임 지휘자 진윤일이) 지난 2일 일본 도쿄 오페라시티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2 아시아 오케스트라 워크'에 한국대표로 참여했다.

'2012 아시아 오케스트라 워크' 한국 교향악단 대표 참여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No3 연주 '예술 목포' 알려

목포 시립 교향악단이 지난 2일 일본 도쿄 오페라시티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2 아시아 오케스트라 워크(Asia Orchestra Week)'에 한국 대표 교향악단으로 참여했다.

일본 문화청 주최, 일본 오케스트라연맹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

사에서 목포시향은 진윤일 상임 지휘자의 지휘 아래 베토벤의 피아노 콘체르토 No3, 차이콥스키의 심포니 No4, 박범훈의 신모듬 등을 연주했다.

목포시향은 2년 연속 서울 예술의전당 '전국 교향악축제'에 참가,

품격높은 명문 교향악단으로 주목받으며 이번 오케스트라 워크의 한국 대표로 선정됐다.

정종득 목포시향장은 환영 리셉션에서 "목포시향이 한국대표 자격으로 펼치는 일본 공연은 예술의 도시 목포의 명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로 문화교류와 우의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완도 웃음택시 "빵빵 터져요"

개인·법인 16대 선정
중순부터 시범 운행

'빙그레 웃는(莞) 섬(島)'인 완도에서 '웃음택시'가 첫선을 보인다. 완도군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건 강한 웃음과 친절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택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웃음택시'를 도입했다.

'웃음택시'는 개인 12대·법인 4대 등 모두 16대를 선정했다. 완도군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건 강한 웃음과 친절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택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웃음택시'를 도입했다.

군은 선정된 택시에 디자인 로고, 제복을 제공한다. 웃음과 친절 교육

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웃음택시'에는 내비게이션과 교통카드·신용카드 결제기, 영수증 발급기 등의 시스템을 갖춘다. 모범 웃음택시 운전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불친절한 운전자는 '3진 아웃제' 등 페널티를 준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웃음 축제'를 개최하고 웃음 치료사를 양성하는 등 웃음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으로 '웃음 테마촌'도 건립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웃음 축제'를 개최하고 웃음 치료사를 양성하는 등 웃음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으로 '웃음 테마촌'도 건립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해남군 내년 시책 200억 규모 120여건

농·어업, 문화관광 분야

해남군이 최근 2013년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군정 행거기에 나섰다.

이번 시책보고회에서는 농·어업과 문화관광 등 모두 200억 규모의 120여건 신규시책이 보고됐다.

신규사업 중 농·어업 분야는 ▲명품 친환경쌀 인센티브 지원 ▲여주 품질향상과 상품화사업 ▲새로

운 약용작물재배 실증시험 ▲축하우(牛) 장려금 지원사업 ▲해남 농·수산물 홍보대사 운영 등이 눈길을 끌었다.

문화관광분야는 ▲마을전통 민속 잔치 발굴 및 육성지원 ▲에코스테이 기본계획 수립 ▲우수영지(詠) 번역 발간 ▲공통화석지 야외학습장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이 발표됐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판골 전국 국악경연대회

6~7일 해남 문화예술회관

'판골 해남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6~7일 이틀간 해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경연 종목은 관소리·무용·고백·기악(가야금 병창 포함) 등이다. 참가 신청은 4일까지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학생부·노인부는 무료, 성인부 3만원, 일반부 5만원, 명교부 10만원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정읍·남원시 '구절초 축제' 열린다

6~14일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서

꽃밭음악회·자전거 유람·음식장터 등 다채

'제7회 정읍 구절초 축제'가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 정읍시 산내면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행사 첫날인 6일 오후 4시 김종환·유익종·함종아 등 7080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개막식과 축하공연이 열린다.

또한 행사기간 9일동안 매일 2회씩 '구절초 꽃밭음악회'가 펼쳐진다. 6일과 13일에는 구절초 꽃밭에 설치된 야외 스크린을 통해 '토요 야외영화'가 상영된다.

이 밖에도 구절초 축육(足浴)체험을 비롯해 '사람의 우체통', '자전거타고 사골종경 유람', '드라마 촬영지 탐방' 등 풍성한 체험 이벤트가 준비된다. 정읍시 17개 마을에서 운영하는 구절초 향토음식 장터와 농특산물 판매행사도 마련된다.

한편 정읍시는 시화(市花)인 구절초를 지역특화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진행중이다. 정읍 구절초 축제는 연관광객 35만명·4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전국 가볼 만한 축제 20선'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둘레길'에 조성된 구절초 단지.

6~14일 남원 지리산 둘레길 3구간에서

도보여행·작은 음악회·떡메치기 행사도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둘레길 3구간에서 구절초 축제가 열린다. 예비 사회적기업인 지리산둘레길(대표 박문화)은 6일부터 14일까지 내동마을~실상사 중간지점에 있는 갤러리 '길쌈' 일대에서 구절초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는 도보여행을 비롯해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 사진경연대회, 떡메치기, '자연의 내 가슴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만여㎡에 조성된 구절초 단지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하나로 3년 전부터 조성한 곳이다.

갤러리 길쌈 강병규(48) 대표는 "앞으로 둘레길 구간 3만여㎡에 구절초 단지를 조성, 꽃과 이야기가 있는 둘레길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남원시의 천년의 역사와 '지리산 둘레길'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 등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전북 해안 해파리 경보 해제

태풍에 수온 내려가 개체수 거의 사라져

전북 도내 서해안 해역에 발령된 '노무라입깃해파리' 경계경보가 해제됐다.

전북도와 국립 수산과학원은 "9월 하순부터 수온이 내려가고 태풍 14~16호의 영향 등으로 부안·군산 앞바다의 '노무라입깃해파리' 개체 수가 거의 사라져 주의보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도와 국립 수산과학원의 합동 조사 결과 '노무라입깃해파리'는 군산 비응도~왕도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여선에서 소량으로 잡혔다.

앞서 지난 8월 전북도는 새우잡이 배를 동원, 제거작업을 벌여 168t을 잡았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최대 길이가 2m, 무게 150kg에 달하는 독성이 강한 해파리로 해수욕하다 해파리에 쏘이면 통증과 흥분을 동반한 채찍모양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연근해에 대량으로 출현, '보름달물해파리'와 함께 수산업, 해수욕장, 국가기간 산업 등에 연간 3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흑염소 집중 육성

FTA 대응 소득사업

남원시는 FTA(자유무역 협정) 확대 체결에 대응한 틈새 소득사업으로 흑염소를 육성한다. 흑염소는 허약체질 개선과 성인병 예방 등 효능에 따라 해마다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남원시는 흑염소 사육환경개선 장비를 농가에 지원해 FTA에 대응한 농가 소득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흑염소 농가에 8000만원을 투입, 사료 배합(발효)기를 지원한 결과, 80%의 사료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외국인 가족 추석 맞이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 전주 덕진동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외국인 가족을 위한 추석 행사'에서 웃음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단신

'청정 남원' AI·구제역 집중 방역

남원시는 동절기 철새 이동시기에 맞춰 4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8개월간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집중 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한다.

가축방역 상황실은 축산과장을 상황실장으로 평일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가축방역 비상연락망(1588-4060)은 24시간 운영한다. 시는 AI 방역 추진을 위해 오는 17일 가금농가 집합교육 및 매주 1회 방역 홍보 SMS 발송, 읍면동 현수막 게시와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정읍, 6·25피해살묘 희생 인사 추도식

정읍시는 지난 28일 고부면 6·25피해살묘와 충무공원내 42주 지묘에서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반공인사 추도식을 가졌다.

6·25피해살묘는 1950년 9월 27일 인민군에 의해 폐급관에서 화살당한 군·경, 종교인 등 반공인사

150여 명이 묻혀있는 묘역이다. 김성기 시장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만행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의회, 5년 연속 의정비 동결

순창군의회(의장 최영일)가 5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군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2013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3020만원)으로 결정해 5년째 연속 동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영일 의장은 "태풍 '볼라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과 침체된 지역민생 경제를 고

려해 의정비를 의원 만장일치로 동결했다"며 "재난발생 후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유재산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해 지역농가의 생계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부안, 무성 영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 공연

무성 영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이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부안 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부안마실길' 홍보대사인 최영준 씨가 극본, 감독, 변사까지 맡는다.

'검사와 여선생'은 소학교 시절 자신을 돌봐줬던 여선생이 억울

하게 살인죄를 뒤집어 쓰자 제자였던 검사가 무죄를 밝혀 석방한다는 내용의 줄거리다. 부안군은 "기성세대에게 추억과 향수를 제공하고 신세대에게는 새로운 장르의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